

2024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 프로젝트

공모 지침서

2024. 04.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목차

I. 공모 목적

II. 공모 개요

1. 공모 개요
2. 작가 지원 사항
3. 유의 사항
4. 공모 주최 및 관리

III. 공모 세부지침 및 제출 자료

1. 공모 주제
2. 작품계획 지침
3. 제출 자료

IV. 작가 선정 및 지원

1. 작가 선정 일정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3. 신진작가 워크숍

V. 상금 및 유의사항

1. 상금 지급 방법
2. 저작권 및 기타 유의사항

❖ 첨부 자료

공모 대상지 소개

I. 공모 목적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공간에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공공미술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2023년, 서울시는 도시공간에 상상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진 공공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국내 작가를 대상으로 한 작품 공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 올해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을 대상지로, 노을공원의 너른 잔디마당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야외 전시의 출품작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 주제는 ‘예술은 환경 그리고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공공미술을 통하여 환경문제와 기후 위기 시대에서 예술이 취해야 하는 태도와 역할에 대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기다립니다.
- 노을공원 일대는 과거, 그윽한 향기가 나는 난초와 지초가 많이 피어있다 하여 “난지도(蘭芝島)”라 불리우던 장소 입니다.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무려 9,200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높이 100m에 가까운 쓰레기 산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오염유출수와 메탄가스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면서 불모의 땅이 되버린 난지도는 1995년 부터 시작된 안정화 공사를 통해 월드컵공원으로 탈바꿈하였고 2024년 현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생태/문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공모의 대상지이자 전시 장소가 될 노을공원은 가양대교와 양화대교 주변의 한강, 올림픽대로, 난지한강공원이 어우러진 풍경을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으며 서울의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노을명소 입니다. 또한 조각예술품, 전망데크, 가족캠핑장 등과 더불어 넓은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을공원만이 가진 역사와 생태적 특성에 걸맞은 작품으로 공공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전시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노을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더해줄 이번 공공미술 작품 공모에 작가, 기획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II. 공모 개요

1. 공모 개요

- 공모명

-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어떤 시도 (Some Attempt at the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

- 공모 과제

- 주제: 예술은 공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내용: 파괴와 재생, 노을공원에는 생태적 순환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감각되지만 없고 감각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공존한다. 대상지의 지역성과 현재성, 환경문제 이슈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과 예술, 인간의 공존에 대한 고민을 작품을 통하여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상지: 노을공원 잔디광장 중앙부 일대(추후 세부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작: 3점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미술, 건축, 조경,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예정)인 작가(팀)

-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 제안 및 공공미술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미술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작가(팀)

- ※ 상기 두 요건은 동시 충족해야함. 단, 2인 이상 팀 응모의 경우 최소 1인 이상 두 요건 동시 충족 시 응모 가능

- ※ 2인 이상 팀의 경우 다분야(과학, 무용, 극, 문학, 음악, 전통예술 등) 전문가(큐레이터, 연출가, 연구자, 기획자) 등 포함 가능

- 공모 및 접수기간

- 공모 기간: 4월 22일(월) ~ 5월 19일(일) 24:00

- 접수 기간: 5월 13일(월) ~ 5월 19일(일) 24:00 ※ 접수는 접수기간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 1차심사(서류심사):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 2차심사(발표심사): 5월 27일(월) ~ 6월 5일(수)

- 당선작 발표: 6월 7일(금)

- 작품 제작 및 전시 운영 일정

- 작품 제작: 7월 말 ~ 9월 말(예정)

- 작품 전시: 10월 중순 ~ 12월(예정)

- 지원방법 : 공모 누리집 통해 접수 (2024noeulpublicartproject.com)

II. 공모 개요

2. 작가 지원 사항

- 작품 제작비: 1인(팀) 당 2500만 원 지원
- 당선 작가(팀) 상금: 각 200만 원
 - ※ 2차 발표심사 대상자(팀) 사례비 각 50만 원 지급
 - 발표자료(PDF), 작품 설계 등 심사자료 제작 및 작품 구상에 따른 사례비
- 공공미술 분야 전문가 워크숍 및 작품 검토, 자문 제공
 - 작품 안정성 검토 및 보험 지원

3. 유의 사항

- 작품의 저작권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 주최자는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 주최자가 진행하는 홍보 및 행사를 위해 응모작을 활용 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응모와 동시에 이에 관한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 공모전 수상작 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제외, 수상 및 선정이 취소된다.
- 본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결정에 따른다.

4. 공모 주최 및 관리

- 공모 주최 및 사업 주관: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2713)
- 사업 시행 및 운영: (주)어반콜라보
 - 본 사업의 시행사(어반콜라보)는 원활한 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운영사무국을 구성
 - 공모운영사무국은 서울특별시의 감독하에 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작품 공모를 진행하며 작품공모 참가자의 등록, 질의 응답, 참가 작품 접수 등을 감독하고 작품 접수 완료 후, 작품 심사를 개최하고 본 심사의 전 과정을 보조
- 공모 문의: 운영사무국
 - 전화: 02) 6952-4907
 - 이메일: 2024noeulpublicart@gmail.com

III. 공모 세부지침 및 제출 자료

1. 공모 주제

- 주제: 예술은 공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부 주제:

1) 기억이 모인 땅:

-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화한 노을공원, 이러한 장소의 역사성과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며 재료 본연의 물성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2) 노을이 스미는 빛:

- 노을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동성, 순환성, 시간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노을공원의 자연환경적 요소(지형, 바람, 빛, 소리 등)를 활용하거나 드러내는 작품

3) 바람이 머무는 언덕:

- 기존 대상지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작품

2. 작품계획 지침

- 필수 포함 요소
 - 노을공원의 환경, 역사, 지리적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작품
 - 야외에서 전시 및 유지 가능한 작품
- 자연 친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waste zero) 장려
- 작품 또는 작품과 관련된 시설 유지, 관리에는 가급적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고려
- 기존 잔디 및 수목 등의 훼손 및 생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나 야생생물 서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 지양 (너무 큰 소음이나 너무 강한 빛 등)
- 전시 기간 중 작품 운영과 유지관리 및 보수가 원활해야 함
-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비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제반 규정을 준수

III. 공모 세부지침 및 제출 자료

3. 제출 자료

- 참가신청서 / 작품개요서 / 공모참가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하나의 파일로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작품제안서(별도 서식 없음)
제출분량: A4(가로) 20 매 내외, PDF 파일로 제출
- 작품 제안서 내 필수 포함 내용
 - 1) 대상지 및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 기획: 작품 구성 요소, 내용, 소재 등 포함
 - 2) 작품 제작 방법: 작품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소재, 구조, 제작방식 등
 - 3) 작품 예상 도안: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시안 또는 공간계획
 - 4) 작품 운영 방식: 전기, 소방, 통신 등 작품 운영에 필요한 기계 설비나 원활한 작품 감상을 위한 관람객 안내 지침 등
 - 5) 작품 제작 및 설치 예상 일정
 - 6) 작품 제작 및 설치 소요 예산안(세부 항목별 금액 표기 필수)

IV.작가 선정 및 지원

1.작가 선정 일정

공모 및 접수	>	1차심사	>	1차 결과발표	>	2차 심사	>	최종 발표
4. 22.(월) - 5. 19.(일)		5. 20.(월) - 5. 24.(금)		5. 27.(월)		5. 27.(월) - 6. 5.(수)		6. 7.(금)
공모 홍보 및 작품 접수		기획안 심사		온라인 게시		작가 발표 심사 최종 작가 선정		온라인 게시 및 개별 연락

- 1차심사(서류심사): '24. 5. 20.(월) - 5. 24.(금)
- 응모작품 제안서 서류심사 후 6작품 선정(2배수)
- 2차심사(발표심사): '24. 5. 27.(월) - 6. 5.(수)
- 1차 선정자의 작품 기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3작품 선정
- 심사기준 및 배점(총 100점)
- 독창성 30점 / 공공예술성 30점 / 실현가능성 20점 / 유지·보수 용이성 20점
※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든 심사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
- 최종 선정작 발표: '24. 6. 7.(금)
- 발표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는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 서울시 및 유관기관 전문가 5~8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비롯해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

IV.작가 선정 및 지원

3. 신진작가 워크숍

- 추진목적: 작품 실현성, 안전성, 대중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워크숍
- 일정: 6월 중
- 실행 자문: 기존 노을공원 작품전시 작가,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 주요내용
 - 선정작가와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작품 기획안 구현방안 구체화
 - 작품 실현을 위한 제작팀과의 미팅, 구조보강, 안전성 보강 진행
 - 제출 작품의 시민 이해증진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V. 상금 및 유의사항

1. 상금 지급 방법

- 최종 선정 작가는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상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 최종 선정 작가 중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차심사대상자 또는 최종 선정 작가가 2인 이상의 팀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상금 및 사례금을 지급한다.
- 2차심사대상 작품 사례비는 최종 당선 작품 결과 발표 이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 최종 선정 작가의 상금은 결과 발표 이후 30일 이내 50%를 지급하며, 작품 설치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50%를 지급한다.
- 상금 지급시 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2. 저작권 및 기타 유의사항

- 작품의 저작권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 주최자는 비영리, 공익적 목적으로 주최자가 진행하는 홍보 및 행사를 위해 응모작을 활용 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응모와 동시에 이에 관한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 공모전 수상작 및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경우 심사 제외, 수상 및 선정이 취소된다.
- 본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라도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및 주관 측의 결정에 따른다.
- 작품 전시기간은 1개월(예정)이나 변경 될 수 있다.

난지도의 역사

① 산업화 이전 -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지상낙원

(1) 좋은 풍수 조건을 가진 땅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졌던 섬

조선 시대의 기록에는 난지도가 좋은 풍수 조건을 가진 땅이라고 기록됐다.

꽃이 피어 있는 섬이라는 의미의 '중초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구한말까지 이 명칭으로 불렸다.

(2)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보고

편마암으로 구성된 한강 하류의 삼각주에 해당해 많은 동식물이 서식했으며 8m 정도의 자연제방이 섬의 북단에서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조선 말기까지 배가 정박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들의 먹이가 되는 동식물이 풍부해 1970년 말까지 고니, 흰뺨검둥오리 등 수만 마리의 철새가 몰려드는 자연의 보고였다.

(3) 낭만과 치유의 섬

추억이 깃든 낭만의 섬, 난지도

서울 시민들에게 난지도는 추억이 깃든 낭만의 섬이었다. 상암동 주민들의 야유회 장소, 영화촬영지로 이용되었고, 갈대숲이 아름다워 데이트 코스로도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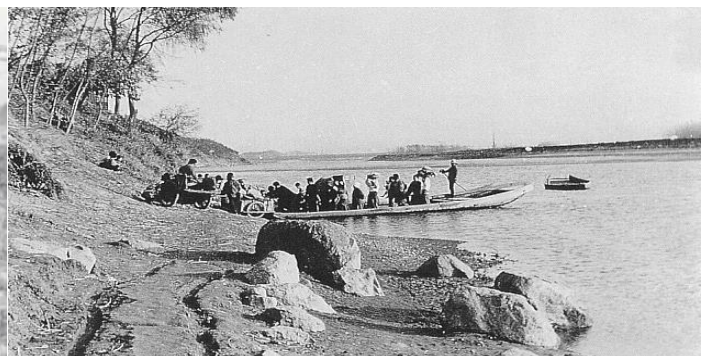
“1950~60년대 난지도는 나룻배로 접근할 수 있는 섬이었다. 셋강 너머 상암동에 살던 주민들은 야유회를 즐기러 이곳을 찾았다. 셋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난지도로 들어가 그늘막을 쳐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가 하면, 친구들과 섬 안에서 수영하며 재첩을 캐 먹고 남은 걸 팔기도 했다. 낚시도 많이 했는데 바위틈에 사는 붕어와 잉어를 많이들 잡았다.” (당시 인근 거주민 인터뷰 中)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치유의 섬, 난지도

1950년 11월 주민들이 돈을 모아 나룻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룻배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50~60회 왕복으로 운행했다. 난지도사람들은 주로 채소를 팔러 물로 나가거나 등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했다. 난지도에 농지를 가진 상암동 100여 가구에도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어주었다.



▲ 난지도에 모여 야유회를 즐기던 상암동 주민들



▲ 나룻배를 타는 난지도사람들

난지도의 역사

② 산업화 - 도시 성장과 함께 변화한 불모의 땅

(1) 급속한 경제성장, 외면 받기 시작한 지상낙원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맞이하게 됐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인구 증가로 인해 한강으로 방출되는 분뇨와 폐수도 급격히 늘었다. 한강의 하류 지점인 난지도에서의 환경오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난지도의 강물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점점 끊어졌다.

서울시의 외곽지이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제방축조공사로 안정성까지 갖춰가던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최적의 대상지로 낙점됐다.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세우면서 난지도는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난지도에서는 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다른 재난을 몰고 온 것이다. 그렇게 쓰레기 산으로 꽃섬은 자취를 감췄다.

(2) 파리, 먼지, 악취와 함께 매립가스, 침출수가 흐르는 불모의 땅으로 변화

난지도에서 실시하는 비위생 매립방식은 쓰레기 침출수로 인해 강이나 지하수 오염, 메탄가스 배출로 지반침하의 위험이 높았다. 수거된 쓰레기를 그냥 쌓아 놓으니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매립 초기에는 사업소가 위치한 현 평화의공원 자리에도 슬러지 등 폐기물이 매립됐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 침출수는 대기 환경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환경 문제가 발생됐고, 침출수의 증가와 지반침하는 매립지 붕괴로 이어져 안정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불모의 땅으로 변화한 것이다.

(3) 누구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그리고 세계 최고 쓰레기 산(해발 98m↑)

난지도 매립지에서는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에 대한 구분이 없는 비위생 매립이 이뤄졌다. 당초 국제적인 매립지의 일반적인 높이인 45m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었지만 수도권에 짓기로 했던 매립지 건설이 늦어지면서 난지도에 쓰레기를 계속 쌓을 수밖에 없었다.

1993년 3월 해발 94m(제 1매립지), 98m(제 2매립지)의 거대한 쓰레기 산을 남기고 15년간의 매립장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됐다. 난지도는 약 9천 197만㎡의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누구도 찾지 않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됐다.



▲ 난지도쓰레기산

난지도의 역사

③ 공원조성 -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환골탈태’

(1) 도시에 건강한 변화를 찾아준 난지도의 공원화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는 많은 것을 바꿔게 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바꿔 놓는 데도 역할을 했다. 월드컵축구대회란 국제행사를 수용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공간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월드컵공원이 만들어졌다. 사전작업으로 오염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정화하고 지형을 안정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월드컵축구대회 이전까지의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으로 오염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서울 도심으로 전이 시키는 위협요소 였다면, 공원으로 바뀌면서 생명이 살아난 난지도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문화발전소가 됐다.

월드컵공원은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현재의 친환경 공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와 그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배우는 장소로 활용하고, 도시 내 부족한 생물종 서식처를 대체하는 비오톱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다.

새천년 최초의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는 공원으로서 의미를 담은 밀레니엄공원으로 시작했으나 월드컵 개최를 기념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되살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2002년 2월 27일, ‘월드컵공원’이란 정식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2) 시민과 함께 숨쉬는 자연생태공원

월드컵공원은 평화의 공원/하늘공원/노을공원/난지천공원/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중 ‘노을공원’은 서울시민에게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지환경대중골프장’으로 조성하였으나, 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환경문화공원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노을공원의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정돈하지 못했던 공원 경사면이나 척박한 지면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가꾸고 자연의 생명력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노을공원의 생태는 여러 숲 활동가와 시민들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 현재의 월드컵공원



▲ 시민들의 노력들

(척박했던 노을공원(2011.08) - 노을공원 경사면에 나무를 심는 시민들(2016.03) - 시민들의 노력으로 수풀이 우거진 노을공원 모습(2023.07))

첨부 자료 - 공모 대상지 소개

노을공원 현황

- 월드컵공원 구성



- 노을공원 구성



첨부 자료 - 공모 대상지 소개

노을공원 현황

• 노을공원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1-6 (월드컵 공원의 일부)
- 공원면적 : 911,859m²
- 개원일 : 2002. 5. 1
- 관리부서 : 서부공원여가센터
- 주요시설 : 파크골프장, 노을캠핑장, 조각공원, 천문대, 누에생태체험장, 반려견 캠핑장 등
- 유관계획 : 상암동일대 활성화 계획, 노을전망대, 제2 파크골프장, 반려견 캠핑장 조성
- 주요시설

| 파크골프장

- 운영기간 : 4월 ~ 11월 (매주 월요일 휴장)
- 이용시간 : 09:10 ~ 17:00 (16:00 입장 마감)
- 규모 : 30,500m², 18홀(전반 9홀, 후반 9홀)
- 수용인원 : 1회차당 72명, 4회차 총 288명



| 노을캠핑장

- 운영기간 : 4월 ~ 11월
- 이용시간 : 14:00~12:00 (22:00 이후 입장 마감)
- 규모 : 30,300m², 총 134면 (3개 구역)
- 수용인원 : 1면당 최대 6명, 총 804명



| 천문대

- 운영기간 :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변동
- 이용시간 : 10:00 ~ 21:00
- 이용인원 : 회당 최대 20명
- 프로그램 : 천체 관측 및 교육



| 누에생태체험관

- 운영기간 : 5월 ~ 10월
- 이용시간 : 10:00 ~ 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대 상 : 자유롭게 관람 가능
- 프로그램 : 누에 생태에 관한 해설 및 안내



| 조각공원

- 개 장 일 : 2009년 7월
- 주 제 : 재생,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
- 작품 수량 : 조각 작품 10점



첨부 자료 - 공모 대상지 소개

대상지 현황

• 노을공원 개요



• 대상지 개요



- 대상지 위치 : 노을공원 내 조각공원 (약 9,000m²)(노란색 영역)




- 특이 사항:

- 1) 대형 파빌리온 작품(아트 파빌리온) 설치 예상지 참고 필요(초록색 영역)
- 2) 전기, 수도 등을 연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멀리 위치해 있어 작품 계획 시 참고 필요
- 3) 지반특성상 땅을 깊게 팔 수 없음 (60cm 이상 흙파기에 어려움 예상)

첨부 자료 - 공모 대상지 소개

노을공원 현황

• 대상지 인근 조각품

	조각품 1	조각품 2
작가	김광우	김영원
작품명	자연 + 인간 (숨쉬는 땅)	그림자의 그림자 (홀로서다)
소재	고내후성 강철	청동
규격	W 5.0 * D 10.0 * H 2.4m (약 6ton)	W 2.2 * D 1.9 * H 5.7m (약 4ton)
작품사진		
	조각품 3	조각품 4
작가	이종각	강은엽
작품명	확산공간 2009	소멸뒤에 오는 것
소재	청동	석재 + 사운드
규격	W 4.2 * D 3.15 * H 1.1m (약 13ton)	Ø 8.0 * H 0.9m (약 10ton)
작품사진		

첨부 자료 - 공모 대상지 소개

노을공원 현황

- 대상지 사진

